(붙임)

사 진 자 료

<정명식, 2013, 종묘 정전, 84×110㎝>

(사진설명)

“저는 궁궐과 왕릉을 보수하는 대목수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열고 보수를 하면
마치 제가 외과의사가 된 기분입니다.
지붕의 아픈 곳을 고쳐주고 용마루 정중앙에 서니,
종묘 정전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끄러지듯 흘러내리는 기와지붕 아래로 비움의 미학을 보여주는 광활한
월대가 숨어 있습니다.“

<조범래, 2021, 관리반 선생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30.5×42㎝>

(사진설명)
“저는 창덕궁에서 관람객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은지 얼마 안된 어느 날,
밤사이에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관람 준비를 위해 모두가 평소보다 분주했던 아침,
우리 관리반 선생님들은
관람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얀 눈, 하얀 세상, 하얀 땀방울.“

<이종춘, 2023, 희정당의 밤, 33×42㎝>

(사진설명)
“저는 창덕궁에서 행사 관리와 안내해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봄꽃이 만연한 4월 창덕궁 희정당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야간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길었던 코로나, 전각 안에 밤손님을 들인 것이 얼마만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고
비가 많이 내렸지만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관람객 모두가 돌아간 뒤
고즈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희정당.
봄밤의 정취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정명식, 2013, 붉은 홍살문 사이 정자각, 32×42㎝>

(사진설명)
“저는 궁궐과 왕릉을 보수하는 대목수입니다.
비바람을 맞는 홍살문은 살대가 가장 먼저 썩습니다.
5년 정도 지나면 바람에 부러져 교체해야 합니다.
2013년 9월 살대를 교체하려고 김포장릉 홍살문 위로 올랐습니다.
태극 문양 아래로 보이는 정자각.
신성한 장소임을 나타내는 홍살문이 장릉을 품었습니다.”